일 주 문



한국사찰림硏 후원의 밤

종수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스님은 12월 27일 오후 6시 서울 운니동 여유당에서 한국사찰림연구소 후원회원의 밤을 개최한다.



동지팥죽 나눔행사

돈관 영천 은해사 주지 스님은 12월 21일 영천시장에서 은해사 신도회와 함께 팥죽나눔행사를 개최했다.



3차 천일기도 회향

황운 보광선원 주지 스님은 12월 5일 3차 1천일 기도를 회향했다. 스님은 1989년 · 1997년 흥련암과 송광사서 1천일 기도를 회향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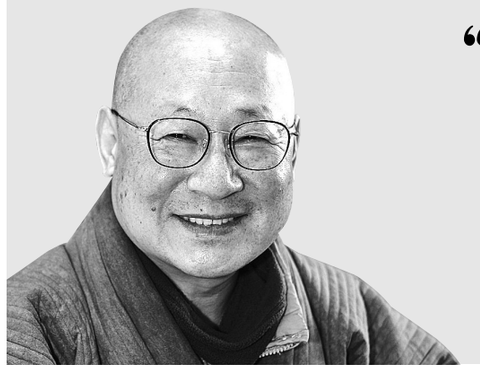
제3회 산타스님 자비나눔

마가 자비명상 이사장 스님은 12월 25일 노량진 고시촌 일대에서 '제3회 산타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과 MOU

정관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12월 11일 동국대서 동국대 불교대학원과 불교사회복지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해 스님에게 듣는 미래 불교 방향"

Interview

〈조선불교유신론〉 강의 나서는 혜룡 스님

한국불교硏서 1월 16일 강의
신행 혁신 교육 차원서 진행
"문제의식 발현, 신심 고취로"

"파괴는 모두다 없애 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구습 중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고쳐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유신을 잘하는 사람은 파괴도 잘하기 마련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유신은 낡은 관습과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변화와 개혁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바른 방법이 요구된다. 과거 100년 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쓴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바른 개혁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열린다.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부산 센텀 일심사 주지 혜룡 스님〈사진〉이 1월 16일부터 3개월 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연구원 서울 구도회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을 강의한다.

혜룡 스님은 강의 목적을 '바른 신행'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현재 집행부와 반 집행부의 의견 충돌 사이에서 불자들은 길을 잃습니다.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충돌 사이에서 불자들은 어느 의견이 맞는지 몰라 헤매고 고통 받습니다. 이번 강의는 바른 안목을 제시하고 불교 신행을 정립하도록 돕기 위해서 개최합니다. 불자로서 불교 발전을 위한 고민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때문에 자신의 신행이 왜곡되선 안 됩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1913년 구한말과 일제 초기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불교계의 역할을 제시하고 발전을 촉구하는 글이다. 책에서 만해 스님은 교육, 참선, 염불, 포교, 의례, 주지선거, 승려의 단결 등 불교 내부 문제와 사회 변화까지 통틀어 설명해두었다.

혜룡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불교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 회의를 가지고 외면하거나 개인 신행만 주력하며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본다"며 "성숙한 불자는 불교 발전을 위한 문제 의식도 가지면서 자신의 신행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사 혜룡 스님은 해인사 지족암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를 수료했다. 하동 쌍계사 강사 및 학감, 교무국장, 구례 화엄사 강사, 학감을 역임했다. (051)781-0543

하성미 기자

동국대 유치원, 법인 이사장 표창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교육부의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에 선정된 동국대 부속유치원(원장 김혜순)에 표창을 수여했다. 자광 스님은 12월 20일 법인 이사장실에서 표창 수여식을 열고 김혜순 동국대 부속유치원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자광 스님은 "그동안 우리 동국대 부속유치원 구성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앞으로도 모든 일에 부처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8회 '대원불교문화상' 시상식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 김정환)은 12월 20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8회 대원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문화상 부문별 당선작은 불교학술 논문 부문에 김한상(불교대학 소속) 박사의 '스리랑카 승가에서 아란냐까 전통의 정통성과 연속성' 불교학술 학위논문 부문에 민태영 박사의 '불교 경전에 나타난 식물 연구' 등이다. 8회째를 맞이하는 대원불교문화상은 2009년 대한불교진흥원과 동국대가 협약을 맺어 제정했다.

노덕현 기자

운문사서 법계문학상 시상식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12월 15일 올해 2회째를 맞은 법계문학상 시상식을 경내 선열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대상작은 이갑수 작가의 장편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선정됐다.

이갑수 작가는 "법계문학상을 계기로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얻었다. 앞으로 글 쓰는 작업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38명 배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자격증 수여



올해 사찰음식 전문조리사로 총 38명이 배출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제4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한 38명에게 자격증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문화사업단이 2014년부터 배출한 사찰음식 전문조리사는 총 18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단장 원경 스님은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시험에도 좋은 결실을 맺게 된 합격자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치사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신위숙 씨는 "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체험에 참가했다가 사찰음식에 매료됐다. 이후 꾸준하게 노력해 전문조리사 자격까지 갖추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으아~ 이젠 박물관에도 들이대"

조계종 불교중앙博, 가수 김흥국 씨 홍보대사로



가수 김흥국 씨가 오심 스님과 홍보대사 위촉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불가가수 김흥국 씨가 불교 성보 문화재 알림이로 나선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12월 20일 박물관 관장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김흥국 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위촉은 그간 홍보가 부족했던 것을 고민했던 박물관 측이 내놓은 홍보 전략 카드 중 하나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흥국 씨는 한국불교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김흥국 씨는 "홍보대사 제안에 불교 문화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불교 문화재 전시와 공연을 접목하는 문화행사에는 매우 공감한다. 불교 문화재를 알리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흥국 씨는 현재 대한가수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자신의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저소득 소외계층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정준호 "생명나눔 홍보 '가문의 영광'"

12월 20일 생명나눔본부서 홍보대사 위촉식



배우 정준호 씨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12월 20일 위촉됐다.

배우 정준호 씨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에 발벗고 나선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20일 본부 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배우 정준호 씨를 2017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정준호 씨는 이번 홍보대사 임명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자랑스러움을 내비쳤다.

정준호 씨는 연예인 불우이웃돕기 봉사단체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부회장을 맡아 소외계층을 돕는 데 앞장섰다. 정준호 씨는 장기기증 서약서에 서명하며 "고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 사랑을 소중한 생명 기증 홍보하는데 쓰겠다"며 생명나눔이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나눴듯, 많은 분들에게 앞장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멋진 스타가 훌륭한 일 도와주셔서 든든하다. 장기기증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이식 대기자가 2만6천여 명에 육박한다. 생명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형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